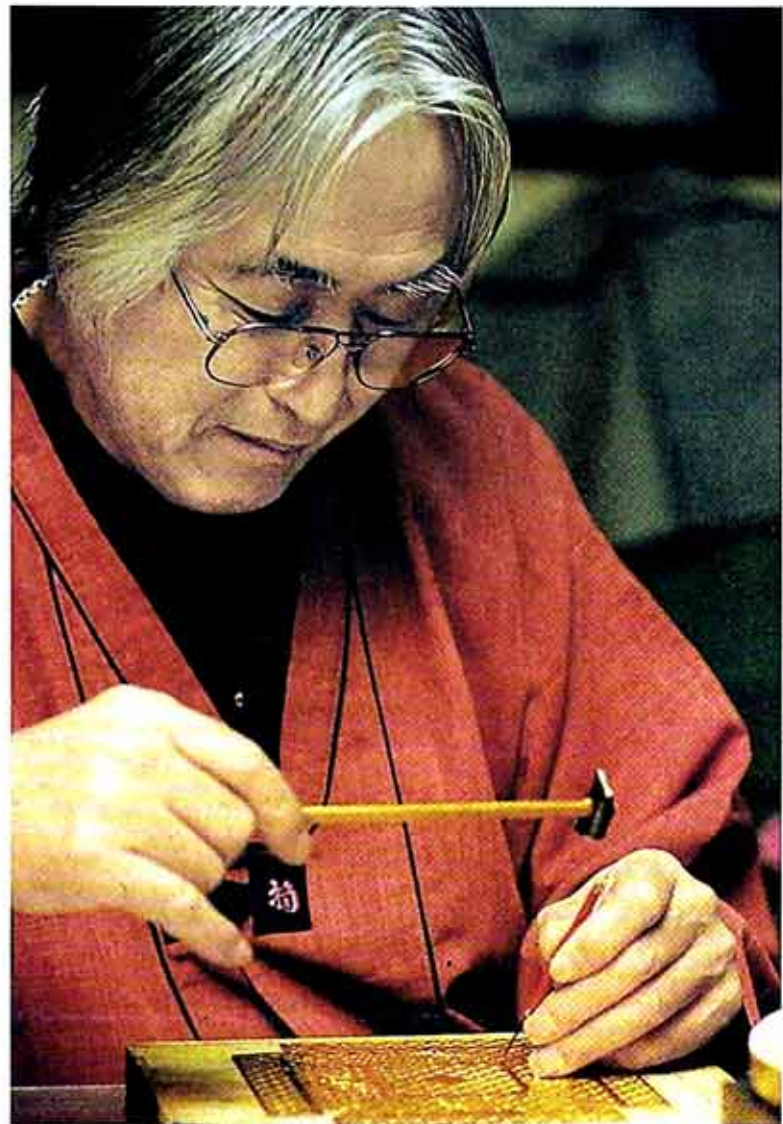


불심에 녹아든 예술혼...사리함 제작 외길 28년



◀스님들이 편히 쉬고 즐기는 정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리함을 제작합니다. 30년 가까이 사리함 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최광웅(61, 전통금속공예 연구소 금오산방 소장) 거사. 사진=고영배 기자

그런 그가 다보탑 석가탑 사리함 복제품을 만들면서 사리함 제작에 골리게 됐다. 부처님의 집을 짓는 복되고 소중한 일임에도 누구나 전문가라 부를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길을 걸기

사리=수행의 결정체...진신·법신·승사리 등 3종류

사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남겨지는 육신이나 뼈를 뜻하는 법어 사리(sarira)에서 온 말로 불교에서의 사리는 석가모니의 신골(身骨)을 뜻한다. 사리는 셋으로 구분되는데 부처님의 유골인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경을 뜻하는 법신사리, 고승의 유골인 승사리로 나뉜다. 한량없는 육바라밀을 닦은 공덕과 계정에 삼학을 수행하여 생기는 사리는 매우 얻기 어렵고 따라서 제일가는 복전(福田)이 된다고 금강명계에 밝히고 있다.

사리구=사리용기·봉안공양품...공양소탑·탑지 구분

사리구는 사리를 직접 담는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리장엄의 방법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심에 사리를 직접 넣는 용기는 주로 수정이나 유리병이 사용되며

그 다음 안에서부터 금은 동으로 만든 내함과 이를 감싸는 철이나 돌로 만든 외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리봉안 방식은 <대열반경>에 있는 부처님의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관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문밖의 禪 전통금속공예가 최광웅 씨

눈길 닿는 곳 모두가 불국토인 경주에서 28년째 사리함 제작의 외길을 걷고 있는 최광웅(61, 전통금속공예 연구소 금오산방 소장) 거사.

승광사 구산 스님과 인흥 스님, 성철 스님의 사리함을 비롯해 충북 보은 법주사 청동대불 사리함, 서울 봉은사 마애대불 사리함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원래 토목을 공부했던 최 거사가 전통금속공예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1년, 그의 나이 서른 살 때다. 금은방 하는 친구들의 세공작업을 구경하며 조금씩 공예기술을 익혔고 73년에 천마총 출토 금속유물 복제품 일을 돌다가 이에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스님의 삶·가르침 모두 담도록 노력하지요”

전통 방식 ‘고수’...월산스님 사리함 제작중

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인 것이다. 매일 불교서적을 읽고 불교미술에 대해 공부했다. 사리장엄구를 단순한 유물 복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의 삶, 스님이 머물던 사찰의 분위기까지 다 담아내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원력 때문이다.

“사리함을 구상할 때는 꼭 스님이 머물던 사찰을 찾아 사진을 찍고 산세와 절집 분위기까지 기록합니다. 사리함의 외함에는 가능하면 그 사찰의 사천왕을 그대로 재현해 조각하려 합니다”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1~2년씩 걸리는 사리함 제작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작업이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되지 않았다. 차라리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따볼까 생각도 들었다. 이때 자신을 잡아준 것이 부인 박영희(59) 씨의 말 한마디다. “부처님 인연이 닿아 들어선 길이니 함께 공부하며 개혁해 봅시다.”

그에게 사리함은 어떤 의미일까? “보통 큰스님들께서 입적하시면 세상에서는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관심을 갖지요.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로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정도를 측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분별심 아닐까요? 저는 다만 사리함을 부처님과 스님이 편히 쉬고 즐길 정자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에게 98년은 잊지 못할 해다. 성철 스님의 사리함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사리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인사를 다녀왔다. 사진을 찍고 성철 스님의 법문집도 읽으며 스님 사진도 열심히 들여다봤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지만 사리함 모양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한계인가. 시름은 깊어졌다. 공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긴 어느 날 홀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1~2년 걸려 하나 완성

“효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라” 나중에 법문 테이프를 듣고서야 그것이 성철 스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말을 화두삼아 설계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리함을 만들고 동판에 금강경을 새겼다. 하루 종일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피곤하면 잠시 옆드려 눈을 붙이기를 2년간 반복했다. 마침내 98년, 외함과 네 겹의 내함으로 이루어진 사리함과 금을 입힌 동판 사경 16장이 완성됐다. 그 순간 비로소 ‘부처님 일은 인연 따라 이뤄지고 원력이 간절하면 어떻게든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는 불국사 조실을 지냈던 월산 스님의 사리함을 만들고 있다. 월산 스님과 인연은 어머니를 위해 금강경을 동판에 새기는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시작했다. 사경 소식을 전해들은 월산

스님이 직접 공방으로 찾아와 “당신이 하는 일이 곧 수행이고 공덕 쌓는 일”이라며 격려했다. 이후 스님은 스스로 스님들이 그의 공방을 드나들었다. 스님이 돌아가시자 사리함 제작은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다.

그의 작업방식은 ‘고생을 사서하는’ 전통방식 그대로다. 은판을 많이 붙일 때도 용접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을 이용해 은과 은이 스스로 붙도록 한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은이 녹아 모양이 어그러지고 온도가 낮으면 서로 붙지 않는다. 땀 질 자국은 수년이 흐르면 부식해 부서지기 때문이다. 0.1mm 두께의 금판을 서로 이어붙이거나 지름 0.3~0.4mm의 금구슬을 붙이는 일 역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삼매에 빠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집 옆 기차길의 요란한 기차소리도 이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조그마한 번뇌라도 생기면 작업은 그대로 도로(徒勞)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망치와 쇠질이 하는 작업이 곧 수행이고 참선인 것이다.

힘든 작업, 후학찾기 ‘고심’

‘부처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은 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사리함을 제작해준 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중’ 작업을 마치는 경우는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거나 작품을 모두 녹여버린다. 그렇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는다.

“부처님 집 스님 집 지어드리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됐지, 돈을 모으는 것은 이생에서 내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리함 만드는 일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도, 누가 크게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싶은 사람은 그 고독을 견디기가 힘든 일이다.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이 시대 장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처럼, 그도 후학 양성에 애태우고 있다. 끈기와 집중력을 요하는 사리함 제작은 일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 젊은이들이 배우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후학 찾는 일이 너무 힘들어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지만 최거사의 좋은 장인(匠人)을 길러내고 싶은 간절한 서원은 아직도 절절하게 간다.

현재 작업 중인 월산 스님 사리함은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그의 ‘작품’은 잠시 세인의 눈을 황홀케 한 후 부도탑 안에 봉안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만든 자신이 그렇듯이.
경주=여수영 기자 snopy@buddhapa.com



◀성철스님 사리를 봉안한 사리함. 산청 겹피사에 봉안돼 있다.



◀최광웅 거사의 작품인 봉은사 마애대불에 봉안된 사리함. 사리를 담은 사리방(왼쪽)을 금으로 만든 사리함(가운데)에 넣고 이를 은으로 만든 내함(왼쪽)에 봉안한다.

육임래정비법

六壬來情秘法

정공 1,300,000원 시간으로 판단하는 역술인 필수 秘奇書! 휴대용 1,500,000원

- 비인더 차트식 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됩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기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만 있으면 그 고인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날 그 시간, 전화 온 그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날 그 시간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먼저 할말은 앞면에, 묻는 대답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지 마자, 전화 발자 마자, 가서 만나지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분이 제법 좋게 되고 합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직,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태매, 도난, 가출, 대인, 빚문, 재물, 투자, 승부, 가전, 경작, 묘지, 기후, 사형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 육임은 참으로 신동하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매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년에 걸쳐 그 정확성이 검증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02-993-8680,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당일배달: 정현철)

입금구좌: 한빛은행 813-041533-13-101 김명관 도서출판 부문

제 2차 육임강의 접수 중

매월 3개월 완성 1,500,000원(호사육임강의특고제포함)

육임비디오 강의 접수 중

총 28개 1,200,000만원(호사육임강의특고 포함)

「호사육임강의록」 300,000만원 출시!